

을 전부 교체한 후 11월 11일 Pickering-2호기를 재시동했다. 이 플랜트는 1983년 8월 1일 튜브 1개가 심한 파열사고를 일으킴으로써 65개월간 운휴상태에 있었다. 이 플랜트가 복구됨에 따라 터빈발전기의 오버홀과 개량형 비상고압냉각설비의 설치를 포함해 135일간의 정지보수공사를 위해 Pickering-4호기를 정지시켰다. 이 새로운 설비는 Pickering의 초기 4개 원자로를 캐나다 원자력규제위원회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1, 2호기에 대해서는 튜브 교체공사시에 이미 설치했고 3호기는 하계 보수기간중에 설치할 예정이다.

프랑스

英佛 環境省長官, 原電 支持

영국 환경성 장관 Ridley씨는 지난 10월 30일 온실효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대규모로 증가시킬 것을 주장하고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의 확장만이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그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구촌 가족」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이 단체는 대처수상이 최근 자연보호문제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원자력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 프랑스 환경성 장관이고 전에 「지구촌 가족」단체의 프랑스 지부장이었던 Lalonde씨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가 충분히 안전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나 5월 Rocard의 새 사회당내각의 환경성 장관에 취임한 Lalonde씨는 10월 22일 르·피가로지와와의 회견에서 그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하에 원자력의 안전성

이 그가 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1981년에 자연보호단체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그는 프랑스의 원자력사업에 단호하게 반대했었다. 그는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1970년과 1981년 사이에는 원자력 개발에 반대했었지만 지금은 엄연히 원자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원자력발전은 9월 현재 프랑스 전력수요의 4분의 3을 충당하고 있다.

그는 그가 최근에 안전상태를 조사해본 결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문제에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방사능이 유지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가 걱정된다고 부언하면서 이것의 저장문제는 안심은 되지만 그를 괴롭히는 도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

WANO本部 位置, 런던 有力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런던에서 회합을 갖고 이 협회의 조정 센터의 위치를 런던으로 할 것을 정식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가 내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WANO 조직에 관한 회의에서 예상대로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면 WANO 내부에서 그간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런던과 비엔나간의 유치경쟁이 끝나게 된다. 또 운영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세계 전력회사들의 최고간부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년 모스크바 대회(5월 15~17일)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두가지 문제도 결정했다. 즉, 동 운영위원회는 WANO의 임무, 목적 및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이 기구의 현장을